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2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23.(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 22.(월)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과
담당과장	김종주 과장(044-203-4530)	담 당 자	한진영 사무관(044-203-4535)

신산업분야 기술사업화에 매년 2,000억원 이상 융자지원 추진

- 「기술사업화 TechLoan(기술보증부융자) 사업」 개시 -
- 산업부, 국민은행, 신한은행, KIAT, 기술보증기금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 지원사업(약칭: TechLoan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신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은 보유했지만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양질의 보증*을 제공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 ①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보증, ② 보증료율 및 금리인하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 지원사업 업무협약」 개요 >

◇ 일시, 장소 : '18. 1. 23 (화) 8:30~10:30, 서울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 협약기관 : 산업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 참석자 : 이인호 산업부 차관, 허인 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산업분야 기업 대표 등

□ 사업화는 연구개발(R&D) 대비 **8~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기업은 **자금조달을 사업화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 사업을 개시하면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기술사업화에 융자·지원**되고, 지원방식이 **기존 출연, 투자에서 저리융자**까지 다변화되는 등 신산업분야 기술사업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에 시작되는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산업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5대 신산업 프로젝트: ① 전기·자율 주행차, ② 사물인터넷(IoT)가전, ③ 에너지 신산업, ④ 바이오·헬스, ⑤ 반도체·디스플레이

【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TechLoan) 사업 개요 】

▸(대상기업)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등 **신산업분야 사업화 추진 예정 기업**

▸(지원규모) '18년부터 약 **2,000억원 규모 저리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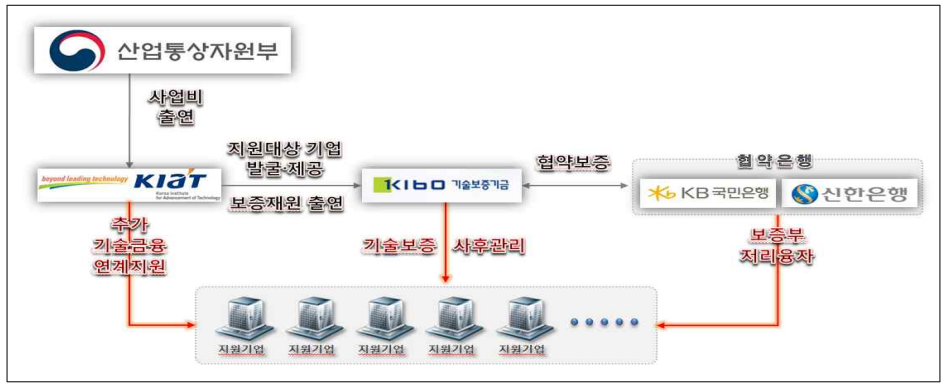
▸(우대내용) 기존 기술보증 융자 대비 보증비율 상승 및 금리 우대

- (기술보증기금) ①**보증료율 연 0.3%p 차감**, ②**보증비율 95%~100% 적용 우대**(일반 보증의 경우 85%) 및 등의 우대 제공
- (은행) 협약보증 대출시, **0.5%p 추가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 (KIAT) 산업기술정책펀드 등 추가적인 기술금융을 연계 지원

□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TechLoan) 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발굴된 우수 신산업분야 기업**이 기술사업화 추진 자금을 신청하면,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에게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금리우대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TechLoan) 사업 추진체계 】



try and Energy

○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보증부담이 감소**되어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며, 가산금리도 낮아져 **금융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인호 산업부 1차관은 협약식에서 "**사업화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사업화 추진 기업들에게 **양질의 융자자금을 제공**해,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 중으로, 앞으로도 **금융기관이 신산업분야 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며, 신산업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 한편, 협약식 이후에도 신산업분야 기업 대표, 협약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산업계 [illegible]안과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한진영 사무관(☎ 044-203-45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